

집체된 청소년포교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인구 최대의 수도권지역 사찰 중고등학생회가 참여하는 연합행사가 개최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사찰들은 10월 29일 오전 10시~오후 4시 서울 동대부속여고에서 '청소년불자 화합의 한마당'이

했다. 참여가 확정된 사찰은 구룡사, 금화사, 능인선원, 미타사, 봉은사, 불광사, 석왕사, 약사사, 조계사 등 9곳. 경인지역 사찰 청소년법회 담당자들은 이 행사를 시작으로 △사찰 청소년법회 지도자들의 네트워크 및 연수실시를 통한 프로

청소년 불자 화합 한마당

경인지역 사찰학생회 연합체육대회

라는 주제로 수도권지역 사찰학생회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체육대회는 서울지역 사찰 청소년법회 담당자들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동프로그램이어서 더욱 뜻 깊다. 지난 9월 24일 조계종 포교원과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서울 경인지역 청소년법회 담당자들은 '집체된 사찰학생회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던 끝에 행사를 준비

했다. 그래프 개발 △청소년 불자를 위한 불교학생회 공동사업 모색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육성, 지원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역 조계종 사암연합회(회장 지명)는 29일 범명사 운동장에서 '천진불 어울림 마당'이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사찰 어린이회 연합행사를 갖는다.

이은비 기자



4대 종교인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촉구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4개 종교인들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도를 올렸다. 4개 종교단체 대표자들은 10월 19일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재다짐과 해명 △민간 통일·평화운동 단체들의 대북 교류 강화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박봉영 기자

어린이 포교전진대회 열린다

11월 11일 포교의지 담은 선포문 낭독

조계종 포교원(직무대행 일관)은 11월 11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어린이 포교가 미래불교의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어린이포교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포교에 대한 조계종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의 어린이포교 지도자 및

어린이불자 2천명을 직접해 포교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는 △어린이포교 관련 모범 공로자 표창 △종단의 포교의지를 천명하는 어린이포교 선포문 낭독 △어린이포교 비전 선포식 △총무원장스님 치사 등으로 진행된다. 이은비 기자

복지종사자 모여라!

불교사회복지대회, 11월 3일 범종단 차원서 열려 기관 실태조사 첫 발표·불교자원봉사연대 발족

매년 연말마다 조계종이 주최하던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올해는 더욱 확대돼 불교계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거듭난다. 특히 올해에는 조계종 뿐 아니라 전각종과 천태종 사회복지재단까지 참여해, 범불교적인 화합의 한 마당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 불교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까지 초청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돋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은 '나눔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불기2550년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11월 3일부터 이틀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및 조계사 일대에서 개최한다. 1부가 펼쳐지는 11월 3일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강당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불교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불교계 사회복지

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간 불교계 사회복지기관들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 4월부터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법인 및 단체 전수조사에 착수해 이번 결과를 내놓게 됐다. 이번 조사는 불교계에서 실시됐던 복지관련 실태조사 중 가장 자세한 것으로, 불교계 복지시설의 운영현황 전반이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권역에서는 불교계 산하 유아 및 보육시설을 다니는 어린이 500여명을 초청해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미술관 잔치'를 연다. 불교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사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11월 4일에는 조계사 일대에서 각종 불교계 복지단체가 참여하는

불교사회복지박람회 및 연예인 애장품전, 인기가수 초청공연, 각종 차 및 사찰음식 무료시식, 바자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마당에는 △승가원, 연꽃마을, 불교사회복지회, 불국토, 진각복지재단, 천태종복지재단 등 불교계 대형복지법인과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지구촌공생회, 정토회, 우리는 선우, 맑고향기롭게 등의 NGO 단체 △조계종직할자원봉사단, 천수천안, 정토마을, 중앙신도회 '반갑다 연우야', 불교환경연대 등 봉사단체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도선사, 진관사, 불광사 등의 사찰 및 25곳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등 약 60여명에 이르는 다양한 단체와 이용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부스를 추천해 시상도 할 계획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계기로 불교자원봉사연대(가칭)를 발족하고, 다양한 복지단체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범종단적 네트워크를 차츰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복원된 낙산사 동종 이운·첫 타종

낙산사는 10월 16일 복원된 동종을 종 제작사인 충북 진천의 성종사(대표 원광식)로부터 이운한 다음 낙산사 보타라에 임시로 안치해 첫 타종식을 거행했다(사진). 범종 타종식은 낙산사 주지 정념스님, 성종사 원광식 대표이사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타종식에서는 산불에 소실된 보물 479호 동종의 한을 대변하



기라도 하듯 은은하고 우렁찬 범음이 경내에 토해졌다. 한편 낙산사 재무국장 대공스님은 "10월 24일로 예정됐던 원통보전 기공식과 동종 타종식은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지구촌 공생회·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한국국제협력단 NGO 등록

지구촌공생회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NGO로 10월 10일 등록했다. 이에 따라 불교계의 국제협력활동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단체는 1년 1회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KOICA의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KOICA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해외자원봉사자를 보내는 한국NGO봉사단을 해외사

업장에 파견할 수 있다. 또 긴급구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의 80%까지 지원받거나 재난지역 이동을 위한 전세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KOICA가 자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국제구호 및 개발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원로의원 휴암당 정천 대종사 영결식과 다비식이 10월 19일 고성 문수암에서 열렸다. 사진=천미희 기자

올곧은 수행자의 표상

휴암당 정천 대종사 15일 원적

조계종 원로의원인 휴암당 정천(正天) 대종사가 10월 15일 오전 5시 35분 경남 고성 보현암 약사전에서 원적이 들었다. 세수 77세, 법랍 60세. 청담 문도의 제일 큰 어른이면서 올곧은 수행자의 표상으로 존경 받았던 정천 스님은 "푸릇이 홀로 밝아 모양이 없는 자여 본래 생사가 없이 가장 당당하도다. 환화의 삼계에 임의로 오고가니 천상천하에 누가 능히 당하리오"라는 임종게를 남겼다.

임종게
역역고명물형자 본무생사최당당 (歷歷高名物形者 本無生死最堂堂)
환화삼계임거래 천상천하수능당 (幻化三界任去來 天上天下誰能當)

청담문도회 최고 어른

개미떼 밟지 않으려

30리 돌아간 일화 유명

조계종 제2대 종정을 지낸 청담스님을 은사로 1947년 득도한 정천 스님은 49년 법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한 뒤 제랑 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했다. 21살 되던 해, 청담, 성철, 안락스님 등을 모시고 조계종 종정 법전, 원로의원 해정 스님등과 수행했던 인연으로 청량산 문수암에 들어 수행과 불사에 매진해왔다. 하동 쌍계사 주지, 영천 은해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청담문도회장 등을 역임했다. 은사 청담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문수암을 지키며 도선사 조실로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왔다. 저서로는 <피안의 향훈>을 남겼다. 정천 스님의 영결식은 10월 19일 고성 문수암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됐다. 천미희·조용수 기자

조계종 종정 법전, 원로의원 진제·지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법전 스님은 법어를 통해 "백천간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법신을 이루었으니 어찌 종사의 본분상에 생물이 있겠습니까?"라며 정천 스님을 추모했다. 이에 앞서 종산 스님의 영결사를 대독한 진제 스님은 "아직 제 도해야 할 중생들이 이렇게 지친 인데 홀로 열반락을 즐기시렵니까? 원생으로 저희들 곁에 다시 오십시오"라며 안타까워했다. 지관 스님은 "개미떼의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 목직지를 바로 앞에 두고 30여 리 길을 돌아갔다는 스님의 생전 일화가 후학들의 마음을 때리니 앞으로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정진하는 사부대중이 되겠다"고 추도했다. 영결식에 이어 국화꽃으로 장식된 다비장에서 스님의 법구는 귀천(歸天), 거화를 하려는 순간 하늘에 햇무리가 뜨자, 슬픔에 잠겼던 대중들은 "스님 가시는 길에 상스러운 조짐이 나타났다"며 기뻐했다. 정천 스님의 법신은 연기로 화해 문수암과 약사전 약사대불을 들고 구름 낚게 드리운 하늘로 사라졌다.

마곡사 사태에 대한 참회문

귀의삼보 하오며,

존경하는 종정예하와 원로의원스님, 총무원장스님 그리고 각 본사주지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수행과 포교에 전념 하시는 중진대덕스님과 사부대중께 삼가 참회의 글을 올립니다.

소송이 부덕하여 지난 10월 11일 저녁 6시 30분경 대전지방 검찰청 공주지청검사가 당교구본사 주지실로 들이닥쳐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소송은 진심으로 시방삼세의 제불보살님과 모든 사부대중에게 참회를 올립니다. 이번 사태는 그 어떠한 참회로도 삼보에 끼친 누를 만회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종정예하, 사부대중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잘 잘못이나 무고를 따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시비를 불러 오고 이는 종단과 사부대중에게 역시 또 다른 누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인해 무너진 종단과 대중의 명예를 회복하고 결자해지의 각오로서 그간의 물의를 만회코자 더욱더 성찰과 수행으로 본사의 발전과 불법의 흥조에 분골쇄신 할 것을 삼보 전에 맹세 합니다. 거듭 제불보살님 전에 참회를 올리는 바입니다.

불기2550(2006)년 10월 16일

마곡사 주지 진각 합장
마곡사 대중 일동